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진짜와 가짜가 너무나 닮아 보이는 위장 기술의 현실도 문제지만, 정말 진짜는 진짜라고 요란하게 소리 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거나 가짜가 더 큰 환호를 받는 것은 사실 모두의 책임이다. 진짜와 가짜의 문제는 소위 명품 가방이나 신발 등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우습게도 유명하지 않거나, 저렴한 물건에는 짝퉁조차도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진짜를 흉내 내는 화려한 가짜들이 많다. 게다가 사람에게서 진짜와 가짜 구별은 더 더욱 어렵다. 진짜의 의미는 이미 세상에 있는 것을 본뜨지 않으며, 본질과 형식에 거짓과 왜곡이 없음을 말한다. 반면에 가짜는 진짜처럼 꾸미고 거짓을 참이라고 주장하면서 믿을 것을 강요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만큼 '가짜 되기'의 욕망에 휘둘리며, 현실만큼 쉽게 가짜가 진짜로 통하는 일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진짜와 가짜의 관계는 매우 상호조건의이어서 단순

가짜는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다

하지 않다. 이 둘은 가장 멀고도 가장 가까운 관계다.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있고, 가짜 덕분에 진짜는 더 큰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이 조건을 이용하는 가짜 종류 중에서 사람의 가짜 모습이 가장 그럴듯한 진짜 모습을 한다. 하지만 가짜가 진짜를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것이었다. 진짜에게만 있는 진정성이다. 이 진정성만은 유일하게 가짜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화 속 까마귀처럼 가짜 모습을 하면서 아둔하고 얽치 않고 비루해지기 쉽다. 이솝 우화를 보면 어느 날 제우스 신이 가장 깃털이 아름다운 새를 왕으로 뽑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새들은 사냥개로 가서 정성스럽게 깃털 단장을 한다. 그중 깃털은 형편없지만 꼭 왕이 되고 싶은 갈까마귀는 사냥물에 떠내려오는 다른 새들의 깃털 중 아름다운 것만을 골라서 화려하게 자기 몸에 붙여서 소원대로 왕이 되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새들은 분노해서 갈까마귀 몸에서 자신들의 깃털을 떼어냈다. 그리고 갈까마귀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까마귀가 왕이 되려는, 즉 욕망하는 진짜가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다만 문제는 가짜 깃털로 붙이고 왕이 되려고 한 것이다. 본 모습을 숨기고 자신을 위장하고 왜곡해서 가짜를 내세워 얻은 결과는 그것이 무엇인든 당연히 가짜다. 어떤 사람을 진짜라고 함은 실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자신의 개성, 정성과 능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자세다. 이것은 흉내 내거나 모방 될 수 없는 능력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짜는 진짜가 결코 되지 못하고, 가짜는 진짜가 되고 싶은 욕망

이자 거짓 그 자체의 모습이다. 그리고 욕망이 빚어낸 거짓의 무게가 곧 추락의 이유다. '거짓은 꼬챙이처럼 뚫고서 나온다'고 하지 않는가.

반면에 자연은 사람과 달리 가짜가 진짜 행세하려는 욕망과 아둔함 없이 그 자체로 당당함을 보인다. 진짜는 참으로 불리고, 가짜는 '개'로 표현될 뿐이다. 자연에서는 가짜가 진짜인 양하지 않으며, 서로가 어울리며 의지하는 생명 관계의 본질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참기름, 참꽃, 참다래 등이 있고 개머루, 개살구, 개다래 등이 있다. 이들은 진짜와 가짜가 함께 격의 없이 그냥 어울려서 살아간다. 사람들처럼 가짜가 진짜를 모방하거나 거짓으로 속이는 일도 없고 진짜라는 진정성을 과장하지도 않는다. 이 자연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은 지독한 자기애와 자기연민의 동물에 갇혀서 사는 탓인가.

자기애와 연민이라든 신화의 나르키소스를 넘을 자가 없다. 그는 타인과의 모든 관계를 거부하고 오직 자신만을 사랑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물속에 비친 자신 모습을 소유하려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다. 하지만 목숨 걸고 욕망한 것은 자신의 그림자였을 뿐이다. 이 그림자는 허망한 욕망, 왜곡된 아집과 망상이다. 이 나르키소스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가 싶어 두렵다.

가짜는 자신이 가짜인 줄을 모르기에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는 바보다. 새해에는 더는 바보로 살지 않기 위해 시한 구절을 깊게 새긴다.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수필의 향기

우리 함께 노래를



김향남
수필가

한밤중에 난데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국회가 봉쇄되고 헬기를 탄 계엄군이 국회 장악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도 긴급 소집된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의결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그 초유의 사태에 대한 충격과 후유증은 오히려 더 커진 상황이다. 온갖 권모와 술수와 모략들이 광풍처럼 음산하게 이 겨울을 난타하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곤히 자고 일어나 보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 밤새 안녕이라더니 정말로 그랬다. 스마트폰에 표기된 수십 개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곧바로 TV를 켰다. 화면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통령의 모습과 난장판으로 변한 국회의사당, 총과 군장으로 완전무장한 군인들, 밀고 당기는 경찰과 시민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군인, 담장을 넘어가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번갈아 나왔다. 진행자들 역시 놀라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혹시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 아닌가 의심했지만 명백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위급한 순간이었는지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오작 소름이 돋았다. 만약에 그대로 성공했다 라면 어쩔 뻔했는가.

분노한 시민들은 광장으로 나왔고 당장 탄핵을 외쳤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중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으나 설득력은 없었다. 자유와 행복을 약탈한 파렴치범은 오히려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가 아닌가? 어떻게 제 나라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해괴한 일을 자행할 수가 있는가.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내란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그런 논리가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척결, 처단,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같은 말에서는 섬뜩한 광기마저 느껴졌다.

야당은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에 나섰다. 그러나 투표도 하지 않고 집안으로 퇴장해버린 여당 의원들로 인하여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폐회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돌아선 그들은 당론임을 명분 삼아 나름의 계산기를 두드렸을 테지만 형편없이 엇나가 보였다. 그 후안무치 초라한 모습이라니... 묘한 슬픔과 함께 다시 분노가 치솟았다. 뭔가 심하게 조롱당한 느낌도 들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다.

다시 일주일 후 2차 투표가 예고되고 광장에는 더 많은 시민이 몰렸다. 그들의 표정은 한껏 상기되어 있었다. 슬픔? 절망? 그런 게 아니었다.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기보다 흔들고 뛰고 소리치며 노래했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해매임의 끝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모두가 함께 '다시 만난 세계'를 대창하고 '아파트 아파트'를 열창하고 '뽕뽕하게'를 소리쳤다. 울분과 분노 대신 노래와 춤으

로, 거칠고 직설적인 말 대신 재치와 해학이 돋보이는 언어들로, 수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와 평화를 유지했다. 그것은 시위가 아니라 모두 함께 즐기는 거대한 놀이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싸움은 끝내 이기고 말 것이다! 왜? 왜냐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싸우는 놈 위에 즐기는 놈이 있으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놀고 즐기는(호모 루덴스) 존재니까. 죽기살기로 싸우는 것도 좋지만 싸움을 놀이로 만들어버린 저 유희정신이야말로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다. 시위를 시위로 인식하지 않고 놀이로 바꿔버리는 순간, 그때 경험하는 재미와 몰입과 공감과 소통의 의식은 새로 발견한 전통처럼 생명력을 얻게 된다. 참여와 연대, 재미와 의미, 카타르시스를 안기며 뇌 속에 새겨진다. 그리하여 그것은 영원히 닦지 않는 무기가 되고 정의가 되고 어떤 정신이 될 것이다.

느닷없이 자행된 비상계엄의 여파는 내 일상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마음을 다스려 책을 펼치고 할 일을 해보려 하지만 잘 되질 않는다. 나라 꼴이 갈수록 혐약해지는 게 답답하고 화가 치민다. 불안하고 두렵다. '제발 집에 누워있게 해달라', '나까지 나오게 해', '나리가 왜 이 꼴이야', '불안해서 집에서 게임도 못 하겠다' '새해에는 새나라고' 등의 깃발을 들거나 사람들의 심정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저 깊숙한 호모 루덴스의 정신을 깨낼 수밖에 없었다. 함께 노래하고 흔들고 나누며 이 황당한 시간을 이겨내야겠다. 서로 '힘내!' 격려하고, '파이팅 해!' 북돋우며 빼앗긴 일상을 되찾아와야겠다.

기고

엄동설한 속 희망의 매화처럼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축회 회장

매화는 가장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꽃망울을 틔우며 봄을 예고한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을사년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며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최근의 계엄 논란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민주주의는 오랜 투쟁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는 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굶주림과 불안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설 자리가 없다.

정치적 안정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정치권은 국민을 외면하는 정책을 멈추고 민생 중심의 협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특히 계엄 논란과 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는 중대한 사안은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동의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

경제 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역시 꼭 이루어야 할 일이다.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경제 불황 속에서 서민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전환, 청년 창업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는,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주어진 과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

서도 대한민국은 평화와 협력의 중추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외교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이 보여준 희생과 연대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각자가 작은 실천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권만의 몫이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연대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매화가 추운 겨울을 견디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굶주림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으며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을사년 새해를 앞두고 필자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고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함께 화합하고,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봄날을 만들어가자.

社說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원인 규명에 총력을

29일 무안공항에서 착륙 중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인명 피해 규모로 볼 때 역대 국내 항공기 사고 가운데 보기 드문 대형 참사다. 181명의 탑승객 가운데 생존자 2명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희생자 명단에 오를 만큼 안타까운 사고다.

탑승객 대다수가 광주지역 여행사 상품을 이용한 사람들로 확인되면서 유가족은 물론 지역민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는 1997년 8월 대한항공 팜 참사 희생자 228명에 이어 두번째로 큰 인명피해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당시 사고기에는 지역출신 유력 국회의원 일행 등이 포함돼 충격이 컸다. 1993년에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목포공항으로 가던중 해남 아산에 충돌해 66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국내 여객기 대형 참사에 따른 지역민들의 피해가 이번에도 반복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받은 충격도 크겠지만 유가족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기 힘들 정도로 클 것이다. 정부 등 유관기관은 무엇보다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브리핑을 통해 공항 관제탑이 조류 충돌 경고를 한 후 1분 만에 조종사가 조난신호(메이데이)를 요청했고 랜딩기어 없이 착륙하다 5분 만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조류 충돌로 인한 랜딩기어 작동 불량인 직접적인 원인처럼 보이지만 '오버런'으로 충돌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무안공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활주로도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기체 결함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랜딩기어 외에도 다른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 이를 전 사고 여객기를 이용한 고객들의 '시동 꺼짐' 증언을 고려하면 기체 결함이 원인일 수도 있다. 국토부가 블랙박스와 음성기록장치를 수거한 만큼 세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당장은 유가족들에게 건네는 어떠한 위로의 말도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도움은 되지 않는 못할 것이다. 우선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탄핵정국 수습 해법은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발생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덕수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거부해 권한대행을 맡은지 13일 만에 직무를 정지당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석인 3인의 헌법재판관은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가 추천한 만큼 임명 거부 명분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한 대행이 임명권을 거부한 것은 완전체인 헌법재판관 9인 체제

를 만들지 않아 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하려는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것이라 '내란대행'이란 비아냥을 사는 것이다.

12·3 내란 주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정국을 수습하는 기본 전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탄핵 심판을 결정하는 헌법재판관의 9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중책이 맡겨졌다. 군 통수권이자 경제사령탑, 국정 컨트롤타워라는 1인 3역의 무거운 짐을 지게됐다.

힘들겠지만 탄핵 정국을 끝내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첫 과제부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재판관 임명은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조기에 결정하는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無等鼓

나치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하면서 교묘한 언어구실을 만들어 냈다. 악명 높은 유대인 대량학살을 '최종 해결책' (The Final Solution)으로 불렀고 완전소개, 특별취급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을 가

과' (戰隸), '전투 상보'도 마찬가지다. 모두 적을 대상으로 한 용어이지 국민을 대상으로는 결코 쓸 수 없는 용어다. 계엄의 주역들은 광주시민을 학살해놓고도 민간인 집단 살인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미로 사용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을 가

12·3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가관이다. 점진에서 수첩이 나왔다는 점도 이해할만 내용인 더 눈길을 끈다. 정치인, 언론인, 노조,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한 메모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수거대상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말은 우리를 현실과 연결시켜 준다. 나치스가 언어구실을 만든 이유는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죽음의 힘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다."

대사전은 수거를 '버리거나 내놓은 물건 파우를 거두어감'이라고 설명한다. '수거'는 44년만에 다시 부활한 계엄보다 더 퇴행한 언어다.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

광주를 피로 몰들인 전두환 신군부도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언어를 썼다. 계엄군이 군 공식문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광주 소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도 예상치 못한 표현이 등장한다. '포고령 위반자를 계엄법에 따라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처단은 사전의 뜻 풀이 그대로 처리하여 없애거나 죽여 버린다는 의미다. 대명천지에 사람을 수거하고 처단하겠다는 계엄세력의 놀라운 어휘 사용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윤영기 사회·체육담당 부국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국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